

한글 자신감 ‘쑥’... 찾아가는 한글 여름캠프

제주시교육지원청 한글 미해득 학생 대상 수준에 맞춘 1대1 지도... 교사·부모 상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한글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1~2학년을 위한 ‘여름방학 한글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까지 한 달간이다.

이번 캠프는 전문 언어재활사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이다.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특정 장소에 모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내 제주시학습종합클리닉센터(이하 센터) 협의회를 거쳐 참여 희망 학생의 수준 등을 종합 진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 24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지역 초등학교 1~2학년 중 한글을 깨치지 못했거나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이 중 읍면 지역 학생이 우선 선정됐다.

이들 학생은 센터 읽기 지원단 소속 언어재활사와의 1대1 지도를 받고 있다. 음운 인식과 기초



읽기·쓰기, 어휘력 향상 등에 대한 수준별 수업이 학생별로 5~10차시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교·가정에서의 지도를 연계하기 위한 학부모·교사 상담도 진행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방학 기간은 기초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라면서 “전문 언어재활사의 찾아가는 1대1 맞춤 지원이 아이들의 한글 해득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시 재해예방 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시는 2일 이호태우해수욕장 일원에서 제주시 통장협의회(회장 고남영) 회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해 걱정 ZERO! 안전한 제주시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주감협 조합원 자녀에 학자금 전달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은 지난달 31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조합원 자녀 학자금 수여식’을 열고, 87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8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새마을제주도부녀회 봉사상 시상식 개최

새마을지도자 제주도부녀회(회장 홍경애)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27회 제주도새마을부녀회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경면·한경면이장단협의회 선진지 연수

제주시 한경면(면장 양창철)·한경면이장단협의회(회장 이길영)은 지난달 24~26일 영월군 예밀촌마을서 선진지를 연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일도2동민속보존회 깨끗한 공원 환경정비

제주시 일도2동민속보존회(회장 조창운)는 지난달 29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15호 어린이공원에서 풀베기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기노카와-서귀포시 청소년 교류 설명회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서귀포시청 별넷마당에서 ‘2026년 서귀포시-일본 기노카와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성동문합창단 발리국제합창제 은메달

신성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신성동문합창단(단장 김순애, 지휘 오승직)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서 열린 제15회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 시니어부 경연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발리국제합창페스티벌에는 11개국 78개 팀이 참가했다. 시니어부(50세 이상)에 평균 연령 66.4세로 최고령 참가팀인 신성동문합창단은 ‘산유화’와 ‘아리랑’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의 수준 높은 합창단과 경쟁을 펼쳤다.

또 신성동문합창단은 개막식 퍼레이드에서도 우리나라 전통미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단원들은 한복의 품격과 절제미를 담은 임금과 중전의 왕실 복식을 착용하고 등장에 참가자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



다. 또 폐막식 후 꾸마 해변에서 열린 갈라디너에 앞서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너영나영’과 ‘아리랑’ 버스킹 공연을 펼쳤고 ‘강강술래’와 ‘동대문을 열어라’ 등 전래놀이를 함께하며 현지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정서를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서부경찰서 외국인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제주시서부경찰서(서장 윤성근)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및 누웨마루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자율방범연합대, 생활안전연합회, 서부글로벌자율방범대 등 경찰 협력단체 8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역 내 외국인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연동·노형지구대에서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병행한 결과, 불법체류자 검거 및 여권미제시(4건)·무단횡단(25건)·쓰레기투기(11건) 등 총 44건을 단속했다.



동부소방서 가뭄 대응 농업용수 긴급 지원

제주동부소방서(서장 강성부)는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초기 가뭄이 확산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상산읍 시흥리 물탱크 5개(30톤), 31일에는 구좌읍 김녕리 물탱크 2개(12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섰다.

현재 동부지역은 당근 등 월동채소 파종기를 맞아 농업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에 동부소방서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뭄 급수차량과 소방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농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 동부소방서장은 “파종기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가뭄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 읍면동 임원교육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회장 고성영)는 지난달 29일 읍면동새마을협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 읍면동회장·총무 교육’을 개최했다.



경로당 프로그램강사 워크숍 성황리 개최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인순)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2026년 경로당 프로그램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소년범죄예방위-분과 기초질서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회장 오순자)·범죄예방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장 신근형)는 지난달 28일 제주 동여중 후문 등에서 동부지구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귀포시·서사모 사랑의 쌀 기탁식

서귀포시는 지난달 31일 서귀포시청 접견실에서 사단법인 서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광남)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10kg, 50포) 기탁식을 가졌다.

모든 학생을 위한 ‘탐구수업’ 안내서

제주지역 교원과 교육 전문가가 교실 안에서의 탐구수업 설계 방법 등을 풀어냈다. 새 책 ‘모두를 위한 개념기반 탐구수업’(양호선·이윤아·이지선·최이순 공저)을 통해서다.

이 책은 제목처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탐구수업’을 이야기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참여와 깊이 있는 학습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과 달리, 실제 교실에선 일부 학생만을 위한 것처럼 탐구수업이 운영되는 현실을 짚으면서다.

책이 가리키는 문제의 본질은 학생마다 다른 학습 속



단계별로 안내한다. ‘우리 반에서 가능한 탐구수업 만들기’처럼 구체적인 수업 설계 방법과 사례도 담았다.

도와 표현 방식, 사고의 경로를 고려하지 않는 수업의 설계다. 결국 해답은 개념기반 탐구와 보편적 학습 설계에 있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책은 교실에서 탐구수업이 왜 어려운지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끄는 탐구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송승헌 신임 제주맨발학교장 취임

제주맨발학교는 지난 1일 삼양해수욕장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송승헌 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송승헌 신임 교장은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기자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소개해 왔으며, 20여 년간 오키나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연대회와 공연을 기획·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2017년 창립된 제주맨발학교는 제주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 회원들은 매일 맨발걷기 인증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기 맨발걷기, 맨발축제, 맨발길 조성, 환경정화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걷기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송승헌 신임 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맨발걷기가 건강을 넘어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생활문화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